

### 성령에 의한 통일

‘성령에 의한 통일’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원수를 받아들이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원수 안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통일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북한 관련 정세 이야기

최근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남한을 향해 무력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소식에 걱정과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 같은 북한의 행태가 이전에도 있었던 만큼 별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다. 북한 동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결코 닫아서는 안 되지만, 어떤 형태로든 무력적인 행동은 잘못된 일임이 분명합니다.

가장 근래에 있었던 남한을 향한 북한의 직접적인 무력 도발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그해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그런데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기도 합니다. 최근 NBC 방송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가 북한에 잠수함의 핵(核)미사일 발사 능력 확대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또 다른 긴장 고조시킬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휴전선에서 도발적인 공격을 하거나 서해 북방한계선에 가까운 도서에 포격하는 등의 긴급 상황을 미국이 대비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자의 언급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내 여론을 조작하여 트럼프의 당선에 유리하게 개입했던 것처럼, 러시아와 북한이 합작하여 미국 대선에 개입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 국방성의 김강일 부상은 북한의 “해상주권이 지금처럼 계속 침해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하며 “어느 순간에 수상에서는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식 경고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강일 부상이 “수상·수중 자위력 행사”를 염포한 이유는 한국 해군과 해경의 남북 접경 인근 순찰 활동 때문입니다. 이에 김 부상은 “한국괴뢰해군과 해양경찰의 각종 함선이 여러 가지 구실로 우리의 해상국경선을 침범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며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아 수중에서 남한의 해군과 해경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북한과 한반도 주변국들에 역사하시어 어떠한 형태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원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짙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북한 동포를 품고 간절한 기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 기도제목

하나님 아버지, 무력적인 도발을 시도하는 북한의 악한 행동을 심판하여 주시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흥흥한 정세 속에서도 북한과 북한 주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위협에 대하여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안에 어떤 악한 모양이라도 있다면 다 버리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 통일선교기관의 특별기도 제목

(우리들 학교 - 윤동주 교장, 이 기관의 기도제목을 올려 주세요)

### 말씀 나눔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본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간의 신비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의 법과 관례와 이념으로 굳어진 마음에 생긴 ‘틈’(fissure)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일어난 창조는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근본적이고 갱신적’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 있던 차이와 차별의 담과 원수 관계를 허무는 능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은 남북한이 적대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임재하시고 원수의 담을 허무시으로써 남북한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로 맺어가도록 창조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는 표현은 과거의 왜곡된 지식과 편견이 지나갔기에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경험할 때, 타자와의 옛 관계는 지나가고 새로운 관계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성령강림주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새로운 창조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남한 사람끼리만 서로 품는 것을 넘어서 북한 사람들도 그 마음 안에

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한의 모든 사람은 새로운 관계의 복을 누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께서 서로가 마음의 빗장을 벗도록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자폐적 분단을 깨뜨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한반도에 새로운 창조 국가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창조되는 새로운 통일 공동체는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남북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창조적 통일 공동체가 되면, 서로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후유증을 겪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역동성과 활력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성령님에 의한 통일 공동체는 남북한 공동체의 통일을 넘어 통일과 연관된 중요한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일을 이루는 것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보기의 통일이 통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 안에는 서로를 용해시킬 수 없는 여러 관점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고 악한 행위를 구별하여 심판하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지도자 우상숭배와 살인과 전쟁의 소식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편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체포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북한의 죄악은 반드시 단호하게 심판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악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악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원수를 품는 것은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입니다.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롬 12:20). 그리스도인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묵묵히 가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 심판이든 원수의 회개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악을 행할 때 그 원수를 포기하거나 사랑하기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를 통하여 성령에 의한 새로운 통일 공동체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통일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우리를 소극적 참여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그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와 원수가 함께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계 7:9; 5:9),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장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서 주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전으로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념과 신념의 틀이 우리 신앙을 전복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창조하시는 통일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기도합시다.

## 신학적 관점

신학자 미로슬로브 볼프(Miroslav Volf)는 그의 책 『배제와 포용』에서 보편적 인성과 복음적 인성을 지닌 사회변혁가의 모습을 제시합니다.<sup>1)</sup> 이는 보편적 인격(catholic personality)과

복음적 인격(evangelical personality)을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보편적 인격은 성령의 역사로 마음 안에 창조된 공간에 타자를 받아들여 더 풍성해진 인격을 의미합니다.<sup>2)</sup> 복음적 인격(evangelical personality)은 복음에 의해 회개에 이르고, 복음에 의해 형성되며, 세계의 변혁에 참여하는 인격을 말합니다.<sup>3)</sup>

보편적 인격은 원수까지도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자신의 문화를 지키면서 원수를 받아들이는 인격을 의미합니다. 보편적 인격을 가진 존재는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원수를 향해서도 열린 마음(openness)을 가집니다. 이 공간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복음적 인격은 모든 문화 속에 존재하는 악을 심판할 수 있는 인격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적 인격은 마귀와 짐승과 거짓 예언자를 추방합니다(계 20:10).<sup>4)</sup> 악을 분별하고 거절합니다.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는 새로운 통일 공동체는 보편적 인격과 복음적 인격을 지닌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세워져 갑니다.

지난 수십 년에 이어 오늘날에도 북한은 전쟁의 공포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북한 동포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의 공포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악한 북한을 향해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이뤄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있는 악이 제거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보편적 인격과 복음적 인격이 형성되며,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통일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1) 미로슬라브 볼프,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76-84.

2) 위의 책, 77.

3) 위의 책, 80.

4) 위의 책, 79.